

정읍시 가구당 난방비 20만원 지원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20일부터 읍·면사무소서 신청

정읍시가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으로 각 세대당 20만원씩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 7일 기준 5만4485세대 중 취약 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3839세대는 도비 보조금으로 지급(7억 7000여만원)하고, 나머지 일반세대는 시비(재난 예비비)로 세대당 20만원씩 103억6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이학수 시장과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정단은 최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사항과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례적인 한파의 지속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각 가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와 협의를 거쳐 전 가구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20일부터 4주간 세대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가운데 오른쪽) 정읍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6월30일까지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정읍사랑 상품권 가맹점 42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간 많은 시민이 몰릴 것에 대비해 생년월일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방문 신청이 어려운 거동 불편 시민과 중증장애

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군, 18개 항목 최대 2000만원 까지 보장

고창군이 1년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18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2개 항목이 늘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18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 까지 보장된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 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고창군은 지난해 농기계 사고사망 1건, 농기계 사고상해후유장해는 2건, 감염병사망 22건으로 총 9100만원을 군민에게 보상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고창 방문의 해' 맞아 내·외국인 유치...인원 등 조건 충족시 지원금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시행한다. 관광진흥업종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는 방문 인원,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기준 인원을 낮춰 여행사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늘려주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고창군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여행사에 당일 관광일 경우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모아 유료 관광지 2개소와 음식점 1개소를 이용하면 1인당 5000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어 내국인 25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이 단체로 유료 관광지 1개소와 숙박업소에서 머무르는 경우 1박에 1인당 1만원, 2박 이상은 1인당 50%씩을 추가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체관광 수요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고창군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월드드론레이싱 설명회

남원시가 올해 개최 예정인 '2023 남원 FAI 월드드론레이싱 챔피언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드론레이싱과 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 7일 6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2023 남원 FAI 월드드론레이싱 챔피언십'은 오는 10월6일~9일까지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드론 관련 대회 중에서도 가장 권위있는 대회다.

또 국내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대회다. 드론레이싱 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미래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남원 국제 미래항공모빌리티·드론 레저 스포츠 엑스포'도 동시 개최된다.

이와 함께 드론축구, 드론클래쉬, 전국드론 경진대회, 드론사진공모전 등 드론 관련 부속대회와 열기구 체험, 드론 날리기 체험 등 다채로운 드론 관련 부대행사가 준비 중이다.

시는 관련 기업 및 선수,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시민들도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항공레저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복지사각지대 살피는 '시민불편살피미'



발대식을 마친 120민원봉사대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120 민원봉사대' 발대

남원시가 소통강화를 통해 대시민 봉사활동과 취약계층 현장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남원시는 최근 '튼튼한! 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봉사대'가 발대식을 갖고 운봉면 산덕마을에서 민원봉사대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봉사자 등이 참여했고 이들은 수요자 즉 시민 중심의 행정추진과 직접 소통하는 적극적 봉사행정의 결의를 다졌다. 9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120민원봉사

대는 매주 화·수·목 3일간 1개 마을씩을 선정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집중한다. 120민원봉사대의 올해 방문 목표는 100개 마을이다.

120민원봉사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이동빨래방 ▲농기계수리 ▲복지상담 ▲치매상담 ▲마을안전서비스(정신건강) 등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와 건강관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분기별로 '찾아가는 현장체협의 날'을 운영,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찾아가는 현장체협은 최경식 시장이 함께 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깨끗하고 맛 좋은 '안심식당' 찾습니다

정읍시, 4월 28일까지 10곳 신규 모집...물품 지원·홍보 혜택

정읍시가 외식업계의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안심식당' 10곳을 신규로 모집한다.

안심식당 사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식당 출입구에 안심식당 현판이 부착되고, 안전한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 물품이 지원된다.

또 민간 포털 사이트와 지도 앱(네이버·T맵) 등에 해당 업소의 정보가 제공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0개의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신규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4월28일까지 지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중 식사료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희망업소를 모집·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 덜어 먹기(개인 접시, 국자 등 덜어 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 장치(용품) 비치 등 4대 실천 과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음식점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안심식당 지정 마크.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정읍시 홈페이지 안심식당 참여업소 모집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안심식당 확대 지원을 통해 선진화된 음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내 음식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튼튼한 지킴이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